

“5·18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전형입니다”

5·18민주화운동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여 유학생들 한목소리



장려상을 수상한 중국의 방예정씨.

외국 젊은이들 쉬운 설명 선호
뮤지컬·영화 등 작품 만들고
‘한류’ 연계해도 효과 좋을 것
세계화 막는 ‘가짜뉴스’는 근절을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화운동의 전형입니다.”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평가는 하나 같았다.
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일발딩 245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를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평가하고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방안을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게 행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전세계 민주화운동

의 표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5·18 세계화의 주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남대에 재학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엄밀라나씨는 “광주는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 아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젊은이들은 딱딱하고 무거운 정보보다는 쉽게 설명해주는 전달방식을 선호한다”면서 “5·18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영화 등 예술작품을 더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와 5·18민주화운동을 잇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삼육대학교에 재학중인 오지니(중국)씨는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노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렸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K-POP·드라마·영화 등)작품을 5·18과 관련된 주제로 만들면 세계인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경대에 재학중인 레티오안(베트남)과 웨웨카이(미얀마)씨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현재 세계

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지 등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의 눈에도 5·18 가짜뉴스는 5·18의 세계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송실대에 재학중인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라힘씨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세계화를 막고 있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학생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5·18행사 개최 ▲외국인유학생 상대 한국 교육과정에 5·18 포함 ▲외국인 상대 5·18관련 관광지 홍보 ▲세계적인 민주화 기념식 개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은 엄밀라나씨가, 우수상은 윌슨(캐나다)과 레티오안-웨웨카이팀이 각각 수상했고, 이외에도 총 7명이 장려상과 입상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생수 감소 전남 ‘학포자’는 증가세 9월까지 908명 학교 떠나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마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해자(더불어민주당·무안1)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 중단은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 기준 854명, 올해 9월 기준 9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여 명이 증가했다”며 “올해 기준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548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해외유학과 질병 등의 사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포기한 학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의 학생수가 2018년 21만 5390명, 2019년 21만 2262명, 2020년 20만 657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논문표절 의혹 가수 홍진영 “석·박사 학위 반납하겠다”

학위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수 홍진영이 지난 6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진영은 “지난 10여 년을 땀과 눈물을 쏟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니 저 또한 속상하다”면서 지난 2009년 석사학위 취득 당시 “시간을 쪼개 지도교수님과 상의하며 최선을 다해 논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제 없이 통과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단지 몇 %라는 수치로 판가름되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라고도 토로했다. 이어 “이 또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면서 “이유 불분하고 이런 논란에 휘말린 제 모습을 보니 한없이 슬프다”고 했다.
홍진영은 지난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등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한 언론사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74%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홍진영의 아버지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화순 국화동산 만개 온라인 신청하세요

8일 오전 화순 남산공원 국화동산에 수백만 송이의 국화가 피어 있다. 화순군은 매년 이 일대에서 국화축제를 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 화순 주민과 온라인 신청을 한 관광객들만 입장토록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증심사 내년부터 수돗물 쓴다

‘자연마을’ 310곳 수돗물 공급 공사 완료

지금까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자연마을에 올해부터 수돗물이 공급된다.
광주시는 1920년 제1수원지 건설로 시작된 광주 상수도가 100년이 되는 올해, 지난 10월 말 현재 도시근교 자연마을 310곳에 100% 수돗물 공급 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연 수압으로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해

급수 구역에서 제외됐던 무등산 자락 8곳에 자연마을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중이어서 내년말까지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광주의 최대 사찰이면서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했던 증심사에도 내년 초부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율 90%를

달성했다. 우수율이란 수돗물 생산량 대비 요구화된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상수도 누수량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이다. 그동안 광주시 우수율은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수율 제고를 위해 지하에 선형으로 매설된 상도관을 땅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상수도관망 블록구축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지난 6월 잦은 상수도 수질사고와 관련, 기술분야 전문 인력 배치 및 역량 있는 직원 등인 상수도 인사혁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교육대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광주교육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광주교육대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원격교육 지원 인력 10명을 채용했고, 온라인 강의 제작 스튜디오와 대면·비대면 PBL(Problem-Based Learning) 강의실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 및 관련 교육, 우수 원격 강의 사례의 발굴·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교수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성 광주교육대 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원격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원 양성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